

오피니언 리더



조우성
우리종교교회 장로
해안신학연구원 대표

2026년은 개인적으로 어느 해보다 기대되는 해다. 우려되는 일도 없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해 주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도 하신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새해 섬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나 역시 기대했던 첨단기술사업체도 있었고,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줄 알았던 학교 교육사업을 지금도 운영하고는 있지만 10여년 전에 비하면 폐업 수준이다.

한때는 주님 주신 은혜로 열정이 넘쳐 어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님의 은혜로 버텼을 뿐이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인을 통해 건네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하는 일마다 힘이 안고 점점 좋은 일도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출고를 중단한 특정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일으켰다.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 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외국 대기업이 지인을 통해 이 특정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도움을 요청해왔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미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은 인생 최고의 해”

편 사업을 해도 잘될 것만 같았다. 선교사업도 내 구상대로 크게 해보고 싶었다. 까분거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건축 관련 사업에 참여했었다가 분쟁과 배신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뒤통수 당한 뒤 스트레스가 심해져 급기야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문턱까지 간 줄 알았다. 지나고 보니 ‘천국문’ 앞에 가기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훈련인 것 같다. 일어난 줄 알았는데 금세 넘어지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다시 힘을 냈다가도 또다시 낙망하고 불평하기 일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과 속이 다른 사람들, 허세를 부린 사람들,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늘 정죄하고 차별했었던 자아가 공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다. 우리를 공용히 여기시는 그 사랑. 새해 창립 27주년을 맞은 미션 21 독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기도한다.

앞서 올해는 기대하는 해라고 서두에 언급했는데 글의 전개가 어긋나 좀 더 첨언하면 지난해에는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깊은 바다 바닥까지 추락한 것 같은 무능력감이 극심해서 스스로 쓸모없는 놈이라 여겼다. 장로라는 놈이, 그것도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놈이 이렇게 있으니 한심했다. 가끔

하고 늘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왔었던 유전자 때문인지 인맥을 찾아 정보를 취합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경쟁업체 중역을 역임했던 친구도 구매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그 기업 총수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불가능한 비즈니스”라는 답변만 받았다.

새해 첫 칼럼을 요청받고 고민만 하고 있을 뿐 아무 생각도 할 기력이 없어 마감일이 다가왔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지난해 광주독단체인합회가 후원하기 시작했던 “더블레스광주 학교기초불세운동”의 후일담을 써보다가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마음에 놀려 그만뒀다. 마감시간에 쫓기는 마음에 정청래 더블어민주당 대표의 실언,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며 공천현금수수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반박하는 칼럼을 썼다. 쓴 글을 보니 예전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스토리다. 정당이 거리에 늘 내건 현수막마다 비난과 말꼬리잡기 등의 문구에 거부감이 들었던 느낌이 무거웠다. 갈등하는 순간 문득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 내 바보 같은 지난 이야기와 곧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며 무형식으로 써냈다.

2026년이 27주년 맞는 ‘미션21’ 독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기도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흑설탕(dark brown sugar)을 흑당(black sugar)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만에서 유래된 흑당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설탕대신 건강한 설탕이라며 흑당을 사용한 건강음료 열풍이었다. 흑당 대신 흑설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흑당은 흑설탕과 다르다. 이것이 혼동된 이유는 흑설탕(dark brown sugar)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주위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본래 흑당은 설탕 종류에서 원당의 다른 명칭이다. 그렇기에 흑당을 블랙슈가, 흑설탕, 브라운 슈가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이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백과사전에서도 이를 잘못 정의하고 있어 혼동을 주고 있다.

외국 자료에서도 흑설탕(dark brown sugar)을 흑당(black sugar)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국내에 번역되면서 잘못 알려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 인터넷 자료는 물론이고 문서 자료들에도 잘못 정의되어 있거나 때때로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더욱 혼동스럽다. 심지어는 과학사전 중 하나인 식품과학기초사전에도 흑당(black sugar)을 정의하면서, (이것은 흑설탕(dark brown sugar)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갈색(糖)설탕(brown sugar)에 대해서도 잘못 기술되어 있다. 과학전문자료에도 갈색(糖)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는 황색의 설탕이며 유기농 설탕도 이것에 해당한다>라고 잘못 정의되어 있어 일반인들로 매우 헷갈리게 한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두산백과에 나와있는 흑당(黑糖)과 흑설탕(黑糖)에 대한 정의이다. 둘다 잘못 기술된 내용이다. 국내 사전에서도, 흑설탕(dark brown sugar)을 흑당(black sugar)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의 흑당(黑糖): 흑설탕 (정제하지 않은 검은 빛깔의 사탕가루)이다.
* 두산백과 사전의 흑설탕: 사탕수수에서 제조하는 합밀당 (송

蜜糖)의 하나이다. 사탕수수의 즙액을 졸인 후 원심분리로 당밀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밀당 (分蜜糖)에 비하여 불순물이 많고 품질이 떨어지지만, 산지에 따라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정확한 외국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 수록한 데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흑설탕은 당밀을 제거한 분밀당으로 정제당이다. 반면에, 흑당은 합밀당이기 때문에 비정제당에 해당된다. 영어표기에서도 흑당을 black sugar이고, 흑설탕은 dark brown sugar라 해야 맞는데, 이를 혼용하여 잘못 쓰고 있다.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천연)흑당을 건강한 당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백설탕과 같은 정제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의미이다. 흑당은 1차 정제과정만 거친 비정제당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미량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당이라 해도, 흑당의 주성분은 결국 설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장과 삼도 올바른 정보가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신명기 7:9).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장찬익 선교사
아일랜드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지난호에 이어서
사과갑질만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옳은 주장일까요?
■질문 6 : 아담의 죄는 아담의 것이고 나의 죄는 나의 것인가?
■무슬림의 주장 :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이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행한 선행은 아담의 것이

지 내가 행한 선행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입니다. 아담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선행이 나의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행이 나의 선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선행은 예수의 것이고 나의 선행은 나의 선행이니까요!
■기독교의 주장 :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당신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질문 7 :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무슬림의 주장 : 예수는 알라로부터 보낸 받은 선지자이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대신에 가롯 유다가 달려 있는 것을 본 중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 주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죽음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신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는 7가지 질문-3

은 당신이 부모님을 닮고 태어났고 당신의 부모님은 그 위의 조상을 닮고 태어났고 그 위의 조상은 그 위의 조상을 그리고 그 위의 조상은 그 위의 조상을 닮고 태어났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닮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악을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당신이 마음에 예수님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예수가

악에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알라가 자신이 보낸 선지자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알라가 그를 하늘로 올렸고, 대신 가롯 유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습니다 (루카 4:157).
■기독교의 주장 : 그러나 당신의 주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주장에 맞는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을 만나면 최소한 위의 7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권의 선교지에 나가서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7가지 무슬림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한 다 음 전도현장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당신은 준비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임(편임)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ecc.or.kr



한현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계회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
입니다. 합동계회 총회신
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육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 수시접수 (062-266-0153)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ecc.or.kr)
-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말반 :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별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원,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원, 세기총 가입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